

# 2017년 한·일 경제 전망

2016. 12. 2

한일경제협회

이종윤 부회장

# 목 차

---

- **머리말**
- **2017년 세계경제 전망**
- **최근 한일경제의 전개**
- **2017년 한일 경제전망**
- **결 언**

**머리말**

# 머리말

---

- ✓ **한일을 둘러싼 세계경제는 어떠한 전개를 보일 것인가**
- ✓ **최근 수년간 한일 경제는 어떠한 전개를 보여왔으며, 그 구조적 특징은 무엇인가**
- ✓ **경제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가계소비, 수출, 투자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, 앞으로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**
- ✓ **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요구되는가**

# 2017년 세계경제 전망

# 1. 2017년 세계경제 전망

## 주요기관의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

기관명	2017년 성장률 전망	2016년
IMF (국제통화기금)	3.4	3.1
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	3.2	2.9
WB (세계은행)	2.8	2.4

### 이중 IMF는 지역별(국가별)로 하기와 같이 전망

국가(지역)	2017년 전망	2016년
미국	2.5	2.2
유로존	1.4	1.6
중국	6.2	6.6
일본	0.1	0.3
아세안5	5.1	4.8

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의 양적 완화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등을 근거로 2017년 성장률을 2016년 대비 상향 전망

# 1. 2017년 세계경제 전망

## 2017년 세계 경제를 좌우할 미국경제

- 금융의 양적 완화
- 제4차 산업혁명에의 활발한 투자
  - 첨단기술과 자금력을 보유한 민간이 주도 + 정부는 R&D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
- 고용사정 개선 (실업률은 4%대로, 구인건수 및 채용건수가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)
- 개인소비 증가 (2016년9월, 전년동기대비 개인소비지출 0.3%, 소매판매 0.6%증가)
- 해외진출 기업들의 유턴
- 1조 달러 인프라에 투자, 제 세금 인하 및 규제철폐 추진예정
-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인상 추진
- 빈부격차 확대
  - 1980년대 이후 뉴이코노미 강화로 중산층 약화 (비정규직 증가)
-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
  - FTA위축, 보복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2017년 세계교역 위축시킬 가능성

# 1. 2017년 세계경제 전망

## 경제상황의 완만한 개선 속에 불안을 내포한 유럽경제

- '금융의 양적완화 + 마이너스 금리 정책'으로 완만한 개선세
  - 전년동기대비 2016.8월 산업생산 1.6%, 수출 2.3% 증가  
(독일은 산업생산 3.1%, 수출 4.9% 증가)
- 독일은 제조업과 ICT융합에 의한 스마트공장 추진
  - 2020년까지 매년 400억 유로를 스마트 공장에 투입 예정이고,  
독일 기업의 80%가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예정
- 브렉시트에 이은 프랑스, 이탈리아에서의 EU에 대한 불만고조



# 1. 2017년 세계경제 전망

## 큰 폭의 구조조정을 요하는 중국경제

- 과잉투자의 부작용 (LG경제연구원 발표자료 참조)
  - 철강을 위시한 적지 않은 산업부문에 걸쳐 과잉 설비
    - \* 생산능력 이용률('15) : 철강 70%, 석탄 65%
  - 덤핑수출로 해당기업 적자 누적
    - \* 적자기업 비율('15) : 철강 50%, 석탄 80%
  - 부실대출 증가
    - \* 2016년6월 현재, 상업은행 부실대출비율 1.75%, 규모는 1.43조 위안(GDP의2%)
    - \*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한 반면, 대내외 경기부진으로 수익은 감소함에 따라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, 중국 부실채권의 해소 여부가 중국 및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(포스코경영연구원)
- 시장경제의 미확립
  - 교역활동 과정에서 정책당국의 자의적 행동 빈번
- 구조조정 단행하는 경우,  
생산위축 · 소비위축 → 중국경제에의 의존도 높은 한국과 일본에 직격탄

# 1. 2017년 세계경제 전망

## 동남아 경제(ASEAN10)

- 하나의 경제권 (**AEC: ASEAN Economic Community**) 형성 이후 경제안정도 향상
  - 투자환경의 개선, 물가안정 및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등으로 인해 경제 펀더멘털 점차 강화 중
  - 규제 장벽의 완화 또는 제거 및 더욱 심도 있는 연계를 통한 무역 추진
  - 각 나라별 정책 주안점은 상이  
(ex. 베트남:국영기업 개혁, 말레이시아:중소기업 강화, 미얀마: 외국인직접투자유치  
인도네시아 및 태국: 불평등 완화를 위한 농촌개발 및 교육투자  
캄보디아: 농업개발 및 관광산업 증진 등)

- 동남아 경제에서의 일본의 비중

- 일본은 ODA를 통해 동남아에 영향력을 확장시키고, 자국의 동남아 진출 지원

	2000년	2014년
일본의 對ASEAN투자액	2억 달러	204억 달러
일본의 해외투자에서 ASEAN 비중	0.7%	17%

- 반면, 한국은 진출기업 수는 많으나 베트남 이외 국가에서는 정부 지원 미비

# 최근 한일경제의 전개

# 2. 최근 한일 경제의 전개

## 일본 경제의 전개



### 아베노믹스 추진 (2012.12~)

**금융의 양적 완화**  
이자율제로, 엔화가치하락 유도

**재정정책**  
재정지출 통한 경기부양

**성장전략**  
규제철폐,  
경영자원의 합리적 재배치

- 고용증가
- 수출산업중심 제조업 경영구조 강화
- 일본경제의 성장기반 강화
  - 농업구조의 개편 및 농업의 기업화
  - 규제 없는 경제특구 설정
- 정부의 꾸준한 임금상승 독려

- 수입가격 인상으로
  - 저소득계층의 실질 소득 감소
  - 내수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
- 수출기업들이 수출 증대보다는 수익우선
  - 신규 투자 지지부진
- 임금상승도 기대 미만으로, 노동분배비율 저하

기대만큼의 내수증대로 이어지지 않음

## 2. 최근 한일 경제의 전개

### 한국 경제의 전개



#### ✓ 일본의 양적 완화정책(엔저 유도) 대응에 실패

##### 엔화 평가절하(엔저)

2012년 9월 77.57엔/달러  
2015년 7월 123.97엔/달러

##### 동 기간 원화 환율

· 원/달러 : 1,124 → 1,185  
· 원/100엔 : 1,438 → 986

- 조선, 철강, 석유화학, 해운 등 수출경쟁력 약화
- 경영 악화
- 구조조정

#### ✓ 가계부채 상승

#### ✓ 정부재정지출 및 부동산경기로 최소한도의 성장률 유지 중



내수축소 & 수출축소로 경기 침체로 연결

# 2017년 한일 경제전망

# 3. 2017년 한일 경제전망

## 일본 경제전망

###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노력

- ① 육아제도, 요양제도의 정비로 일손 증가 도모
- ② 젊은 층의 노동생산성 향상 위한 기술 강화 지원  
- 생산성 향상 통한 임금인상 유도
- ③ 종래의 토목공사 형 부양책을 지양하고,  
제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**일본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산업화** 추진
- ④ 연금의 최저가입기간 단축 및 임금인상 독려
- ⑤ 해외통상활동 지원 강화  
- 인도,미얀마 등 발전도상국가에 대한 경제지원 강화를 통해 해당국 고속철도 건설이나 발전소 건설 등에 일본기업이 우선 배정되도록 지원



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면,  
2017년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

# 3. 2017년 한일 경제전망

## 가계소비



### ○ 세계경제 호전 및 도쿄올림픽 효과로 투자증가 → 고용기회 확충

- 2015년까지는 고용이 증가되어도 정규직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였으나, 2016년부터는 정규직도 증가 움직임을 보여, 임금상승 및 고용안정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기대됨

### ○ 마이너스 금리

- 마이너스 금리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 
vs (현재까지는)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로 오히려 저축 강화

### ○ 엔저 상태 탈피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

- 2016년 들어 엔저가 상대적으로 평가 절상되어 수입물가 하락  
→ 가계실질소득을 높이는 효과 발생시켜 소비 증가 예상



# 3. 2017년 한일 경제전망

## 수출



### 환율 요인

- 2016년 들어서부터 엔화가 인위적 평가절하상태를 극복하고 정상상태로 회귀하면서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 
→ 수출 증가율 하락 예상

### 세계경기 요인

- 미국과 EU경제의 회복 움직임 → 이들 국가로의 수출증가 기대
- 중국의 큰 폭의 구조조정 → 중국 시장 축소 우려
- 미국금리인상 → 신흥국의 국제유동성 부족 → 신흥국 시장 축소 우려
- \*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다소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

### 해외 프로젝트 수주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노력

- 신흥국 수출증대에 플러스요인



이상의 요인을 종합해서 판단하면,  
환율요인으로 인해 수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나  
세계경제요인의 변동이나 정책적 노력에 따라 증가의 여지도 있음

# 3. 2017년 한일 경제전망

## 투 자



-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증가 예상
- 2020년 도쿄올림픽
- 구마모토 지진 복구
-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부동산 투자 증가 예상



**2017년 일본 경제는 2016년을 다소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기록 예상**

# 3. 2017년 한일 경제전망

## 한국 경제전망



### 한국경제의 정책과제

#### ①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

- 조선·철강·석유화학·해운·건설 등의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시급
- 3년에 걸친 엔저로 인해 황폐해진 한국 기업의 경영구조 정상화 시급
- 중소기업 중, 만성 적자기업이나 한계기업에 대한 처방 필요

#### ② 가계부채

- 생계형 대출의 급증
  - \* 비은행(저축은행, 새마을 금고) 대출 증가: 작년 1~8월 대비 15조원 증가
  - \* 2016년8월 현재, 비은행권 기타대출 잔액: 약163조원 (2007년에는 약 63조원)
  - \* 하위10%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 증가 (2008년 2.09배 → 2014년 7.85배)  
(조선비즈 자료 참조)
- 개인사업자 대출(약185조원/작년 말 대비 9%증가)도 위협요소

# 3. 2017년 한일 경제전망

## ③ 청년실업

- 2015년 청년(15~29세)실업률: **9.2%**

\*일본: 5.3%, 독일: 6.5%, 미국:9.1% (OECD통계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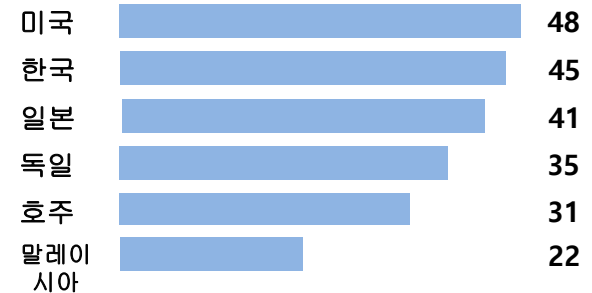
## ④ 소득구조의 불평등 구조

- 상위10% 소득점유율 : **45%**

\*1995년에는 29%

- 비정규직 채용 증가로 인한 불평등 심화
- 국내관광은 줄어드는데, 해외관광 늘어나는 현상
- 분배구조 개선 없이는 내수증대 기대 어려움

<상위10% 소득점유율>



(IMF 2013년 기준)

## ⑤ 김영란 법

- 김영란 법이 내수침체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

# 3. 2017년 한일 경제전망

## ⑥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\_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경제의 구조조정

-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,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한국 수출에 큰 타격 예상
- 단,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의 무산이 양자간 중심으로 FTA 를 구축해온 한국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고,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인프라 투자 확대나 제조업 부흥 정책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음
- 결국,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가 수출 및 경제 성장률에 적지 않은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됨.

# 3. 2017년 한일 경제전망

## 가계 소비



- 조선·건설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해당 기업 및 하청 중소기업에서 적지 않은 실업자가 발생 예상
- 김영란 법의 본격 시행  
    ➔ 국내 소비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

## 수출



- 환율조건(원/엔 환율)은 개선되었으나 그간의 기업체질 약화로 인해 수출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
-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과잉설비에서 비롯된 덤핑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바, 그 대응이 시급
- 세계경제의 회복에 의해 전체적인 통상환경은 나쁘지 않음

# 3. 2017년 한일 경제전망

## 투 자



- 정책리더십 부재로, 제4차 산업혁명분야 등 생산성 향상이나 고부가치 산업으로의 투자가 기대되지 않음



**2017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대비 하락 예상**

# 결언





경제성장률은 정책당국이 정책과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. 한국의 경우, 정책 리더십이 극히 취약한 상태인데, 정책 리더십 확립을 통해 정책과제에 대응해야 함



가계부채 문제, 청년층 특히 대학졸업자들의 실업문제 해결, 빈부격차 문제 해결, 제4차 산업혁명의 정착 등이 정책 리더십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



일본의 경우 '임금인상 → 내수확대 → 경제성장률 제고'가 정책과제로 되어 있는데, 기업들, 특히 중소기업이 임금인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기술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. 한국에서도 이러한 정책 리더십이 요구 됨.

---

# 감사합니다